

2. 선한 거짓말은 가능할까?

칸트는 집에 친구가 숨어 있는 상황에서 흥기를 든 살인자가 나타나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우리에게 인류애에 입각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해 보이지 않으며, 선의의 거짓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단호하게 대답한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반드시 해롭고,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로울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 칸트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칸트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원칙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행위의 결과로 인해 달라질 도덕적 결정이라면 도덕적 법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위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 그 자체로서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칸트의 의무론이 지닌 문제점을 말해 보고, 조건부 의무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서술해 보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결과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의 지문과 같은 경우라면, 칸트의 의무론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자신의 친구가 집에 숨어 있다고 사실을 고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칸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법칙은 지켰을지언정, 그 친구와의 의리도 잃고 그 친구의 목숨마저 범죄자에 의해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 해서라도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거나 덜 우선시되기도 하는, 즉 보류되는 의무인 조건부 의무가 필요하다. 조건부 의무를 도입하게 된다면 위의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여 친구의 목숨을 잃지도 않으며 조건부 의무라는 도덕 법칙 덕분에 도덕적 철학 또한 지킬 수 있게 된다.

3. 일상 속의 공리주의

현아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몸에서 조금씩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차 심각해지자 병원을 찾게 되었다. 충격적이게도 검사 결과 말기 암이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현아에게 큰 병이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평소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을 일찍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족들로부터 환자의 평소 심리 상태를 상세히 알게 된 의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환자에게 말해 주기로 하였다.

1. 윗글에서 의사의 선택이 옳았는지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 각각 평가해 보자.

현아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도 의사가 현아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상반된 견해를 취한다. 먼저 의무론에 따르면, 거짓말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의사는 행위의 결과를 비롯한 주변적 상황에 휘둘러 도덕적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반면 공리주의에 따르면, 의사가 거짓말한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가 현아에게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일단 당장은 현아도 행복하고 현아의 가족들도 현아와 남은 기간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의사는 잠깐 양심의 가책을 얻으면 그만이지만 그에 비해 의사의 거짓말로 인해 행복을 느낄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2. 일상생활 속에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사례를 말해보자.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해당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나만 조금 귀찮고 힘들면 되지만, 나의 사소한 행위로 인해 지구 전체가 조금은 더 나아지게 된다. 이는 고통과 행복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즉,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직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실용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하기

어느 마을의 한 구석에는 항상 몰래 버린 쓰레기가 가득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심한 악취가 난다며, 여러 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때마다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도 붙여 놓았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시 쓰레기는 가득 쌓여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로 골치를 앓았지만 마땅한 묘수를 떠올리지 못하였다.

1.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서술해 보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이유는 일단 올바른 절차에 따라 버리기 귀찮고,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알맞게 버리려면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따로 구입하여 버려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들은 플라스틱의 경우 안의 내용물이 없도록 세척을 하고 바깥의 비닐 포장지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버려야 하는 다소 귀찮은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 나머지 불법투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도록 작용하게 하며, 선량한 마을 주민과 구청 직원들만 고통을 느끼게 한다.

2.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유용한 도덕적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이야기 해 보자.

내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게 하도록 할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감시를 철저히 하여 불법 투기 행위자를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대신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게 하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도록 하는 이상적인 도덕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용하고 지속될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역지사지를 갖게 할 방안 중 내가 생각한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다. 과거 한 기사에서 보았는데, 유독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길가에 거울을 설치하였더니 그 길가에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스스로에게 암시하고, 거울 속 자신이 타인으로 느껴지게 하는 효과도 있어 역지사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도덕적이면서 유용한 방안이다.

5. 내가 꿈꾸는 이상 사회는?

1.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향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향해야 할 것은 '관용'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늘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에 따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방법을 '관용'이라고 보았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들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면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은 '편견'이다. 편견은 서로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방해한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울릴 수 있던 조직도 편견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된 집단을 만들게 한다. 따라서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2. 1에서 선정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꿈꾸는 이상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각자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의 사람들이 모인 마을 형태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